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 절반 못미쳐… 예산 삭감 위기

청년 정책금융 상품 흥행 갈려
주택드림청약, 가입자 126만명

도약계좌, 가입유지자 128만명
목표인 304만명 크게 못 미쳐
국회 “예산 과도”… 삭감 요구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출시된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각종 개편 및 혜택 추가에도 여전히 외면 받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명이다.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뎠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 면에서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군장병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액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다. 청약 당첨 시

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대

70만원의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5년에 달하는 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주고, 지원금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혜택 강화 및 개편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5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도 과도하다는 것.

청년도약계좌 예산액 대부분은 청년

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납부액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금융위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304만명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2024년 동안 6443억7300만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총 2570억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양종희 “생성형 AI 등 활용…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선도”

(KB금융 회장)

제6회 KB테크포럼 Beyond Exp
최신 디지털·AI 관련 기술 논의

KB금융그룹은 지난 29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AI 관련 기술을 논의하는 ‘제6회 KB테크포럼 Beyond Exp’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이번 포럼이 AI·디지털 기술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금융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KB금융의 훌륭한 디지털 인재들이 지혜를 모아 ‘사람을 지향하는 기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성형 AI’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는 KB금융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경험(Experience)을 넘어 탐구(Explore)하고 확장(Expansion)하자’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진행된 ‘제6회 KB테크포럼 비욘드(Beyond) Exp’에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KB금융 전 계열사의 테크·AI·데이터·디지털 부문 임직원 200여 명과 삼성SDS, IBM, AWS, MS 등 파트너 기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개발자세션 I (AI·디지털), 개발자세션 II (테크), 파트너세션

으로 진행됐으며, 개발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주요 계열사의 신기술과 디지털 개발 사례가 소개된 개발자세션 I·II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발 프로세스와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 슈퍼앱 전략·임베디드 금융 강화를 위한 API인프라인 KBaaS 등이 소개됐다.

올해 처음 선보인 파트너세션에서는 KB금융과 함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활용시네이션 저감 방안, 생성형 AI 기반의 업무혁신 방법 등을 각 계열사 개발자들과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개발 관련 질문·답변을 채팅 인터페이스 형태로 보여주는 KB-코더(Coder) 등을 통해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KB금융은 금융 비즈니스의 핵심 역할로 부상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 도시정비 6조 수주

현대건설이 ‘신반포2차아파트’,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사업을 각각 수주하며 2024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6조원을 돌파했다.

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조합은 12월 1일과 11월 30일에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8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0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션 재건축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방화3구역 재건축 ▲마장세림 재건축 ▲신반포2차 재건축까지 총 9개 사업지에서 6조 612억원을 수주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파격발탁’ 정진완 차기 우리은행장… 대규모 물갈이 예고

우리은행 계파갈등 해소 신호탄
연말 부행장급 물갈이 인사 예측

우리금융지주가 여수선한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56·사진)을 차기은행장으로 낙점하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부행장에 오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행장으로 승진해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68년생 행장이 등장하면서 조직내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최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유력 은행장 후보 6명 가운데 가장 젊은 정진완 부행장이 낙점된 것. 현 시중은행장은 물론 우리은행 부행장 중에서도 막내다. 더욱이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부행장으로 승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장 최종 후보에 올라 ‘파격 발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후보는 이달 중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자격요건,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최종 선임될 경우 내년 1월 취임해 2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정 후보는 은행생활 30년 중 26년을 영업점에서 근무한 은행 내 탁월한 ‘영업통’이다.

우리은행이 미래먹거리로 기업금융을 택한 만큼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높은 정 후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은행장 인사는 우리은행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 해소를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19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돼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일은행 출신 정 후보의 입행 시기는 1995년이다. 현재 우리

은행 내부 부서장과 지점장급들 중 다수가 1998년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인 만큼 정 후보 이후에는 통합세대 출신 은행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를 시작으로 임종룡 회장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간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연말 부행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를 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내에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만큼 내부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은행 출신에 따라 영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업은 영업이고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